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⑥

2017. 3. 8.(수), 14:00~16:00

낙랑군 연구와 식민주의

오 영 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교육자료](#)→[강의 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⑥

낙랑군 연구와 식민주의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000

www.museum.go.kr

인 쇄 (주)계문사 / (02)725-5216

낙랑군 연구와 식민주의

오 영 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 머리말

낙랑군은 고조선의 국가 기반 위에 설치된 한의 군현으로, 기원전108년에서 기원 313년까지 420여년간 한반도 서북지방에 존속하였다. 고조선을 토대로 성립하였고, 지역적·시기적으로 삼한 및 삼국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낙랑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한 한사군漢四郡의 역사 지리적 위치 고증작업에서 비롯되었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주요한 연구로는 한백겸韓百謙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이익李瀾 『성호사설星湖僿說』, 안정복安鼎福 『동사강목東史綱目』, 정약용丁若鏞 『강역고疆域考』, 한치윤韓致胤 『해동역사海東釋史』 등이 있다.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역사의식을 고양시키고 실증적 역사지리 연구를 집대성하기 위하여 사서들이 잇달아 편찬되는 과정에서 한사군의 지리고증에도 여러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일제는 20세기초 제국대학 학자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적조사’라는 미명하에 고고학 조사를 실시하였다. 1909년부터 평양 일대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통해 평양 석암동 고분을 비롯한 다수의 낙랑군 관련 자료들이 조사되었으며,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70여기가 넘는 고분들이 발굴되었다. 아울러 고고학 조사 과정에서 낙랑군의 평양 존재를 입증해 주는 다수의 명문 자료들도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낙랑군의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언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이 식민주의의 확산과 어떻게 결부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명문자료들이 낙랑군의 평양 존재를 뒷받침하는데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반론도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대 위당 정인보의 견해와 해방 이후 북한학계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검토 의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2. 낙랑고고학의 성립

일제 강점기 이루어진 평양 일대 낙랑군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다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제1기: 세키노關野貞 등의 조사(1909~1915년)

첫 번째 시기에는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공과대학工科大學 조교수였던 건축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등을 중심으로 소수의 전실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유적과 유물의 발견을 통해 서북한 지역을 낙랑군과 연결시키기 시작하였다.

통감정치 하에서 세키노 다다시는 고건축을 조사하던 중, 1909년 석암동石岩洞 고분을 시작으로 전실묘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발굴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평양이 옛 고구려의 수도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 무덤을 낙랑군의 유적이 아니라 고구려의 유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식민지 교과서 편찬을 위한 사료조사의 명문으로 1911년부터 식민지 조사에 참여한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1910년 대동강변의 유적을 낙랑군으로 비정하는 논지의 글을 최초로 발표하였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문헌사학자로서 전실묘의 발굴에 참여한 이마니시 류(今西龍)도 처음에는 고구려의 유적으로 보았지만, 1910년 11월 동경제국대학에 수집된 전실묘 출토의 철기 부속구에 새겨진 ‘王□’을 문헌에 등장하는 낙랑군의 왕씨王氏와 연결시킴으로써, 평양 일대 무덤을 낙랑군의 유적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1913년 이마니시는 아츠이 세이치(谷井齊一)와 낙랑토성을 발견하였으며, ‘낙랑예관樂浪禮官’

등 명문자료와 ‘낙랑태수장樂浪太守長’ 봉니 등을 근거로 낙랑군치지로 비정하였다. 아울러 평남 용강군 어을동에서 토성과 함께 발견된 「점제현신사비」와, 1920년 평양 선교리 발견 ‘영광삼년永光三年’ 연호가 새겨진 효문묘孝文廟 동종銅鍾 등을 통해, 평양 일대 고고학 문화를 낙랑문화로 확정하게 되었다.

2) 제2기: 조선총독부박물관 주도(1916-1931년)

조선총독부 주도 하에 고분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발굴조사가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풍부한 증원계 문물이 부장된 귀틀무덤이 확인되었다.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한꺼번에 대규모로 고분을 발굴할 무모한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제1차년도인 1916년에는 과거 조사경험을 가진 세키노의 주도로 대동강면의 정백리·석암리의 1호에서 10호분까지 모두 10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다. 금제교구를 비롯하여 최고 수준의 부장품이 쏟아져 나온 석암리 9호분이 조사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발굴결과는 『대정5년 고적조사보고』에 간단히 보고하였다가, 1919년 『고적조사 특별보고古蹟調査特別報告-낙랑군시대樂浪郡時代ノ 유적遺蹟』이라는 거질巨帙로 별도 간행하였다. 석암리 9호분의 조사 결과는 이후 낙랑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특정한 방향과 시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통상 고고학 발굴조사는 조선총독부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1924년에는 낙랑유적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석암리20호(丁), 52호(茂), 194호(丙), 200호(乙)이 발굴되었다. 이중 석암리 194호묘에서는 중원의 광한군과 축군에서 제작되어 낙랑군으로 직수입된 기년명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큰 주목을 끌었다. 발굴보고는 뒤늦게 도요분코(東洋文庫)의 지원을 받아 『낙랑한묘樂浪漢墓』 1, 2권(1975, 76년)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1926년에는 동경제국대학 문학부의 사업으로 석암리 205호(王盱墓) 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은 하라다 요시토(原田叔人)의 주도 하에 다자와 긴고(田澤金吾)·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발굴 경비는 호소가와 모리타스(細川護立)후작이 동경제국대학에 낸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 계획적인 발굴을 통해 봉분에서 목곽에 이르는 무덤의 축조과정을 밝혀내려 한 점이 주목되며, 발굴결과 목곽과 목관의 완전한 형태가 확인되었다. 발굴 보고서는 1930년 『낙랑樂浪』으로 간행되었다.

3) 제3기: 조선고적연구회 주도(1931-1945년)

1931년 이후에는 조선고적연구회가 발굴조사를 주도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는 조선총독부의 발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이타 가츠미(黑板勝美)가 일본과 이왕가 등에서 기부금을 모금하여 설립한 총독부의 외곽단체이다. 이후 1931년에서 1945년까지 발굴조사는 조선고적연구회에 의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1년 이와사키 고야타(岩崎小弥太)로부터 7,000엔의 보조금을 기부받아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낙랑군과 신라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1931년 이후 조선고적연구회 주도로 발굴조사가 다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자금을 외부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자연 조사는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는 경주 신라고분과 평양의 낙랑고분에 집중하는 파행성을 띠게 되었다. 평양연구소에는 오바 츠네키치(小場恒吉)와 고이즈미 아키오를 연구원으로 하고, 후에 다쿠보 싱고(田窪眞吾)가 가세하였다. 1931년에는 횡혈식 목실구조를 지닌 남정리116호분(채협총)을 조사하였으며, 1932년에는 인장을 통해 무덤의 주인공이 밝혀진 정백리127호분(왕광묘)을 조사하였다. 1935년까지 조사한 고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나 『소회8년·10년도 고적조사개보』를 통해 소략하게 발굴보고가 이루어졌지만, 1936년 이후 조사한 고분의 경우 발굴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조선고적연구회에 의해 1934년과 1937년 모두 3차에 걸친 낙랑토성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14개의 트렌치에서 전돌이 깔린 보도, 우물, 자연 판돌로 조립된 암거(暗渠) 등의 유구와 다수의 봉니, 한대 동전 및 용범, 「낙랑예관(樂浪禮官)」 「낙랑부귀(樂浪富貴) 등의 문자와당 등이 출토됨으로써, 낙랑토성이 낙랑군 치지임을 분명히 해 주었다. 1944년 평양 낙랑연구소에 의해 한차례 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토성 내 중앙대지의 남쪽에서 전돌이 깔린 유적이 발견되었다.

1920년대 조사 자료에 의하면, 평양 대동강 남안의 낙랑토성 주변에는 1,600여기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제는 70여기의 고분을 발굴 조사하였다. 귀틀무덤과 전실묘에 제한된 발굴 조사는 이후 낙랑군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낙랑고분의 피장자를 중국인으로 보아 귀틀무덤은 한 전성기의 유적으로, 벽돌무덤은 군현 후반기에 성행한 유적으로 파악하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근거로 낙랑군이 중국인에 의해 직접지배가 이루어진 직할 식민지로 보게 되었다.

3. 낙랑고고학과 식민주의의 확산

1) 낙랑군과 식민사학

19세기 말 근대 역사학으로 포장된 일제의 식민주의 역사학은 침략주의적 대륙정책과 결부되었다.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의 『조선사朝鮮史』(1892)에서 조선은 나라를 세운지 오래되었지만 영토가 중국에 가까운 까닭에 항상 견제를 받았으며, 중국인이 와서 왕이 되거나 그 땅을 군현으로 삼아서 거의 중국의 속국과 같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 인식에 기반하여 한사군을 중국의 식민지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위만 일족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즈음에, 연燕의 압박을 받고 기왕에 온 한인漢人에 의해 만들어진 한인의 콜로니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만조선은 새로운 콜로니, 즉 신新콜로니로 이해하였다. 사실 19세기 후반까지 일본에서는 유럽사에서 사용된 ‘콜로니’라는 용어에 적절히 해당되는 개념이 없었다. 1870년대 홋카이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식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이 서양의 사상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1895년 타이완 복속을 시작으로 해외 침략을 실행하면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된 ‘식민지’라는 개념이 한사군 뿐 아니라 위만조선과 심지어 연燕·제齊·조趙 유이민의 정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한사군을 식민지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족 지역에 대한 한의 군현 지배를 식민지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의 이면에는 역사에 대한 진화론적 시각과 함께 우월 및 차별 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식민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결국 고대사에서 이러한 ‘식민지’의 문제는 타율성론을 통해 이후 식민주의 역사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2) 고적조사사업과 박물관

조선총독부는 1916년 7월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발포하고, 중추원 산하에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이후 발굴조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총독부에서는 5개년으로 「고적조사계획」을 입안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차년도에는 한사군과 고구려, 제2차년도에는 삼한·가야·백제, 제3차년도에는 신라, 제4차년도에는 예맥·옥저·발해·여진, 제5차년도에는 고려를 배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각 시대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한 이러한 계획은, 순수한 유물·유적조사라기보다는, 박물관에 진열한 유물의 확보와 함께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그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결국 고고학적인 조사는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문헌사를 보완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 조사는 낙랑군의 위상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세키노 다다시는 1909년부터 실시된 고적조사 성과를 정리해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발간하여 제국주의 무단정치를 문화적 ‘선정善政’으로 포장하는 선전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낙랑군급대방군시대樂浪郡及帶方郡時代’은 별도로 시대로 설정되어, 『조선고적도보』의 제 1권으로 자기 매김하였다. 낙랑군은 일제 식민사학의 타율성론에서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서, 한국사는 그 출발부터 낙랑군의 설치를 통한 대륙 선진문화의 이입에 따라 역사의 발전이 타율적으로 추동되었다는 식으로 설명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지배 성과를 선전하기 위하여 1915년 ‘시정始政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1915년 물산공진회’라 칭함)’를 경복궁에서 개최하였다. 물산공진회를 위한 대부분의 공간은 임시 가설 건물에 마련되었지만, 미술관은 영구적인 2층 벽돌 건물로 지어졌다. 이후 물산공진회의 미술관은 상설화 과정을 거쳐 1915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식민주의적 역사관의 정립과 선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는 제4실로 「낙랑대방시대」실이 별도 마련되었는데,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품을 비롯하여 낙랑군과 대방군 유적 출토품이 전시되었다. 낙랑대방실의 전시 구성은 칠기, 동경, 토기, 청동기, 견직물 등 재질별로 이루어졌는데,

전시품들은 대부분 중원계 유물이 차지하였다. 낙랑문화가 지니는 전반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중원계 유물을 부각시켜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낙랑문화와 중국문화의 친연성과 아울러 중원의 선진문화가 낙랑군을 통해 한반도에 이식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봉니나 와당, 그리고 명문전 등 명문자료를 전시를 통해 낙랑군 및 대방군의 역사적 실재에 대한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는 낙랑문화에 대한 식민주의적 해석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사전 증빙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낙랑군 유적에서 출토된 중원계 유물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화에 비해 중원계 위주 낙랑문화의 선진성을 강조하여 식민주의적 우열 의식을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 고대문화의 타율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낙랑고고학과 명문자료

1) 정인보의 견해

낙랑군 연구가 지니는 일제의 식민주의적 함의를 정확히 간파한 이는 위당 정인보(1893-1950)였다. 식민사학에서 낙랑군이 차지하는 위상과 함께 조선총독부 주도의 고적조사와 박물관 전시의 식민주의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그 증거로 삼고 유물 사진들은 사진을 찍어 도록으로 만들더니 이른 바 『조선고적도보』라는 것이 생겼다. 해당 도보에서 낙랑과 관련된 것들만 취하여 설명을 덧붙이는 한편 영어로 번역한다고 부산을 떨더니 이른바 ‘낙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루 수집해 가지고 종류에 따라 나누어 진열하더니 이른바 ‘낙랑박물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놀란 나머지 ‘정말 그런가 보다’하고 여기기나 할 뿐 그것이 모두 조작이라는 사실은 모르더라.”

그는 전통 한학과 언어,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조예와 식견을 바탕으로 고대사에 대한 일련의 논설을 1935년 1월 1일부터 1년 7개월간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하로 「동아일보」에 연재하였고, 1946년 서울신문사 요청으로 『조선사연구』를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단군의 위상 문제, 기지동래설 부정, 삼한의 성격, 요하 난수설, 한사군의 시점과 위치 등을 치밀하게 논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발견 또는 조사된 낙랑군 관련 자료의 학문적 신빙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통해 식민사학 타율성론의 근간이 되었던 낙랑군의 입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자 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인 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제시한 명문자료에 주목하였는데, 봉니, 효문묘 동종, 점제현신사비 등이 주 검토 대상이 되었다. 먼저 낙랑토성에서 출토되고 아울러 평양일대에서 수집된 다수의 봉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봉니는 성격상 다른 군현으로 보내는 문서에 날인하는 것이므로 낙랑군에서 ‘낙랑태수장’과 같은 봉니가 발견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봉니에 새겨진 글자의 내용도 작은 규모의 현에서 좌위와 우위 2명이 존재한다든가 왕망대에 낙랑군이 낙선군으로 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랑군이라고 칭해지는 등 내용상의 오류가 확인되는 점, 글씨체가 너무 천편일률적인 점, 낙樂○장長○와 ○랑浪○사史처럼 서로 맞추면 내용이 복원되듯이 조작의 의심이 드는 점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1920년 평양 선교리에서 철로공사 중에 발견된 효문묘 동종의 명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종에는 ‘효문묘동종孝文廟銅鍾 용십승容十升 중사십칠근重四十七斤 영광삼년육월조永光三年六月造’라는 명문이 있는데, 평양에 한대 종묘가 있었으며, 곧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정인보는 한대 각 군국의 묘당은 황제가 친히 행차한 곳에만 세우는데, 효문제는 평양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낙랑군에서 효문묘의 존재를 확증할 수는 것이다. 자신은 동종이 위조품인지 진품인지 가릴 근거가 없지만, 진품이라고 하더라도 후대 시점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1913년 발견된 점제현신사비의 경우 만약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점제현이었다면, 연월일 바로 뒤에 ‘점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보우점제(점제현을 도우소서)’라고 현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새로 편입한 조선 고토의 현령, 현장 들의 조근, 회합 때 그들 중 하나인 점제의 현령이 소원을 비석에 새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46년의 「정무론」에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점제현장 및 현승에 의해 새겨진 것은 맞지만, 비석이 발견된 곳이 점제현은 아니다. 둘째, 오환이 요서 땅을 공격할 때, 점제 현장·현위·현승이 요서에서 군사를 이끌고 합류한 후, 의무려산에 신사를 지나다가 제사를 지내고 비석을 남긴 것이다. (회양오구요서會攘烏寇遼西 ‘무無’ 산군山君) 셋째,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발견된 것은 낙랑군과 관련 사적을 조작할 사람들이 그것을 구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낙랑군과 무관한 명문자료들이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것일까. 이에 대해 정인보는 고구려와 고려시대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추정하고 있다. 고구려 미천왕은 고토를 수복하고 전리품으로 한사군 시절 전적들을 도읍인 평양으로 운반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고문서의 서찰들을 봉니와 함께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후 전란을 거치면서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다소 기발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려 시대 송나라 귀화 관리인 호종조 같은 무리가 고려의 북방진출 위치를 꺾기 위하여, 지금의 평양을 한대 낙랑군으로 조작하여 옛 와당까지 함께 조작해 놓았다는 것이다. 정인보는 한학자답게 주로 낙랑군과 관련된 명문자료에 대한 검토에 주력하였지만, 평양 일대에서 다수 분포하는 고분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한나라 양식의 고분이 발견된다고 해서 한나라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고대에는 전쟁에서 사로잡은 적과 항복하거나 귀순한 자들의 경우 정해진 구역에서 거주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북한학계의 견해

북한학계의 낙랑군 연구는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50년대 고조선의 중심지 논쟁 과정에서 평양의 낙랑군은 평양설과 이동설의 입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1963년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의 출간으로 요녕설이 정설로 위치하게 됨에 따라 평양지역 낙랑군 유적에 대한 해석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요녕설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줄 곧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의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설치된 낙랑군의 존재는 부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서북한의 고고학 유적과 유물은 마한, 고조선 유민, 고조선의 후신인 락랑국 또는 조선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낙랑군 유적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명문 자료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고고학자 세 사람인 황기덕, 정찬영, 박진욱에 의해 쓰여진 1971년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봉니에 대한 견해는 정인보와 마찬가지로 발신자가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짝은 것이므로, 서신의 종점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봉니가 진품이라면 오히려 평양이 낙랑군현과 서신 거래를 하였던 별개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학자들이 실제 낙랑토성 내부를 발굴하였으나 한 개의 봉니도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인장에서 드러나는 왕우, 왕광 등과 같은 관인들은 불우한 처지에 있던 망명객으로서 평양은 낙랑군 관리들이 자주 망명할 수 있었던 이웃 나라의 수도로 보았다. 낙랑예관, 낙랑부귀 와당을 근거로 낙랑토성을 낙랑군치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락랑’은 서북조선과 요동지방에 산 주민들이 자기 나라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며 최리의 낙랑국처럼 그들이 세운 나라에서는 아무데서나 자기 수도를 낙랑이라고 하였다는 특이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료의 진위에 대한 논의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평양 일대가 낙랑군이 아님을 말해 주는 반증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리순진·장주협이 『고조선문제연구』(1973년)에서는 자료의 진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다시 제기하고 있다. 먼저 효문묘 동종은 종묘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100년 뒤 기원 1세기 중엽의 귀틀무덤에서 출토되었으며, 효문제가 행차한 군국에만 효문묘가 세워졌는데, 효문제(기원전 179-154) 재위 시기에는 낙랑군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낙랑군의 소재와 연관시킬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남정리 116호분에서 출토된 목간의 경우 목간의 내용이 부조의 물목으로서 물건의 수량이나 보낸 사람을 쓰는 전한의 관례와 서로 다르며, 왕광인과 왕우인의 경우 도장의 재질, 형식, 서체, 규격이 현대의 도장 제도와 맞지 않다는 등 중국의 사례를 통해 자료의 진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봉니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 개 유적에서 수집된 봉니로는 200여점(1936년 당시)의 숫자가 너무 많은 점, 중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점, 관인이 한변 1.5cm인데 반해 봉니에 찍힌 도장은 2~2.2cm이라는 점, 봉니에 찍힌 군현명이 오직 낙랑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락랑대운장’처럼 당시의 관직제도와 맞지 않는 봉니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점제비와 봉니에 대한 화학 성분 분석을 통해 기존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점제승인’ 봉니는 점제현이 소재했던 온천군 성현리토성 근방의 흙이 아니라 낙랑토성 근방의 흙으로 제작되었으며, 점제비의 화강암도 인근의 화강암과는 성분을 달리하므로 다른 지방의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봉니와 점제비의 진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중국에서 한대 고고학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량의 봉니 자료의 발굴 조사 사례도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견을 확보하게 되었다. 봉니는 문서의 발송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나 물품의 보관에도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군현 성지에서 자기 군현의 봉니가 발견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낙랑토성에서 낙랑군과 예하 현들의 봉니가 발견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남성 낙양시의 漢하남현성의 사례는 참고가 된다. 한 하남현성은 문헌 및 여타 고고학 자료로 하남현성이 확실히 되는데, 여기에서도 ‘하남태수장’ 봉니가 출토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봉니가 물자를 보관할 때 사용한 사례도 발견되기 때문에, 현지 지명을 기록한 봉니가 출토되는 것이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명문 내용 상의 오류라고 지적되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들도 중국 한대 봉니에서 다수 확인되었으며, 서체의 경우에도 동시기 중원에서 사용된 봉니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200여점의 봉니에 대한 후면과 측면의 세부 흔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다수의 봉니에 대한 진위가 입증되고 있다.

효문묘 동종과 관련해서도 앞서와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한서』에 의하면 원제 때 68개 군국에 총 167개소의 묘가 황제가 친행한 지역에 설치되었다. 이는 지방민의 신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국에 묘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 40년(원제 4년)에 모두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고조가 방문하지 않은 요동군이나 요서군의 군치인 차려且慮현에도 고조의 묘당이 있어 군국묘가 생전에 황제가 방문한 곳에만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서북 최전선의 돈황군에도 효문묘가 설치되었으며 원제 5년에도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돈황에서 발견된 목간을 통해 확인되었다. 당대 목간자료가 『한서』의 기록이 실제와는 달랐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효문묘 동종의 출토 사례는 황제가 친행하지는 않은 낙랑군 지역에도 군국묘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점제현신사비는 낙랑군 점제장이 산신 평산군을 제사한 경위가 목적을 기술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당시 모든 산천의 공식 제사는 중앙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었기 때문에 점제현의 제사 역시 중앙 정부의 인가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비석의 규모로 보아 장거리의 이동이 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며, 현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할 것이다.

인장의 경우에는 재질이 나무인 것이 한대 인장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규정은 관인에 적용되며 사인의 경우에는 피장자의 재력과 기호에 따라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였다. 관직명과 인명을 함께 새긴 경우나 전서체의 변형된 글자체도 한대 여타 고분에서 출토된 인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출토 인장 사례를 통해서는 오히려 낙랑고분 출토 인장이 위작임을 증명해주지는 못하게 되었다.

낙랑군의 평양 존재를 부정하는 북한학계에서 1950년대 이후 발굴조사하여 보고한 자료 중에서 낙랑군의 평양 존재를 입증하는 다양한 명문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1958년 평양시 낙랑구역 정백동 1호분에서는 목곽묘에서 세형동검, 철기 등과 함께 ‘부조예군’ 인장이 출토된 바 있으며, 1961년 조사된 인근의 정백동 2호분에서는 ‘부조장인’과 ‘고상현인’ 인장이 출토되었다. 낙랑군의 군현과 관련된 인장 뿐 아니라 1990년초에는 정백동 364호분에서 기원전 45년 낙랑군이 관할하던 25개 현의 호구수가 기재된 「낙랑군초원사년현별호구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문 자료는 기존 출토된 명문자료들과 맥을 같이 하는 자료들로 이해해도 대과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정인보, 1946, 『조선사연구』 ; 문성재 역주, 2013 『조선사연구』 상·하, 우리역사재단
- 황기덕 외, 1971, 「기원전 5~3세기 서북조선의 문화」, 『고고민속론문집』 3
- 김원룡, 1976, 「낙랑문화의 역사적 위치」, 『한국문화의 기원』, 탐구당
- 권오중, 1993, 『낙랑군연구-중국고대변군에 대한 사례적 검토』, 일조각
- 高久健二, 1995, 『낙랑고분문화 연구』, 학연문화사
- 리순진, 1997,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2001, 중심)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1, 『낙랑』, 솔출판사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 이성규 외, 2006,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인성 외, 2015, 『낙랑고고학 개론』, 진인진

Note

Note

Note

Note

【 2017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2017. 1. 25.(수)~12. 6.(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오후 2시~4시
-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 회차 | 일자 | 강의 제목 | 강사 | 비고 |
|---------------------------------|---------|---------------------------|----------------|---------------------------------------|
| 6 | 3. 8. | 낙랑군 연구와 식민주의 | 오영찬(이화여자대학교) | |
| 7 | 3. 15. | 우리 국보를 만나는 법 | 이광표(동아일보) |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되다 (5. 13.-7. 9.) |
| 8 | 3. 22. | 선덕여왕의 이미지 만들기 | 정연식(서울여자대학교) | |
| 9 | 3. 29. | 금관총은 신라 이사지 왕릉인가? | 김대환(문화재청) | |
| 10 | 4. 5. | 한국 고대의 불상 | 배재호(용인대학교) | |
| 11 | 4. 12. |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증언 | 한정호(동국대학교) | |
| 12 | 4. 19. | 천년을 이어온 깨달음의 소리 | 최응천(동국대학교) | |
| 13 | 4. 26. | 고려청자의 세계 |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 |
| 14 | 5. 10. | 다시 보는 이슬람 문명 | 이희수(한양대학교) | 아라비아의 길 (5. 9.-8. 27.) |
| 15 | 5. 17. | 정형에서 파격으로 분청사기의 일곱 얼굴 | 이준광(삼성미술관 리움) | |
| 16 | 5. 24. | 최초의 조선인, 최후의 고려인 | 이익주(서울시립대학교) | |
| 17 | 5. 31. | 조선시대 불교, 쇠퇴인가 확산인가? | 김용태(동국대학교) | |
| 18 | 6. 7. | 활자의 나라, 조선 | 이재정(국립중앙박물관) | |
| 19 | 6. 14. | 한국의 민속문화, 삶과 신앙을 통해 보다 | 김종대(중앙대학교) | |
| 20 | 6. 21. | 임진왜란과 16-17세기 북동 유라시아 | 김시덕(서울대학교) | |
| 21 | 6. 28. |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시풍속 | 김명자(안동대학교) | |
| 22 | 7. 5. | 호란과 복벌, 그리고 복학 | 신병주(건국대학교) | |
| 23 | 7. 12. |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아름다움 | 이태호(명지대학교) | |
| 24 | 7. 19. | 근·현대 서양복식사 | 권유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5. 30-8. 15.) |
| ※ 교육시설 휴지기 등으로 인한 휴강입니다. | | | | |
| 25 | 9. 13. | 왕의 옷과 나라의 위상 | 이중서(울산대학교) | |
| 26 | 9. 20. | 18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예술 교류 | 김정락(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 명품전 (9. 19.-11. 12.) |
| 27 | 9. 27. |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 이남규(한신대학교) | 쇠, 철, 강-철의 문화사 (9. 26.-11. 26.) |
| 28 | 10. 11. | 조선의 목가구 | 황지현(국립고궁박물관) | |
| 29 | 10. 18. | 한국 복식의 국제성 | 채금석(숙명여자대학교) | |
| 30 | 10. 25. | ‘열하일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 | 김철조(영남대학교) | |
| 31 | 11. 1. | 한국 석조미술 이해하기 | 양희정(국립중앙박물관) | |
| 32 | 11. 8. | 한국의 기록화, 계획도 |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 |
| 33 | 11. 15. | 조선의 명醫들 | 김호(경인교육대학교) | |
| 34 | 11. 22. | 대동법의 남자 | 최태성(EBS 역사 강사) | |
| 35 | 11. 29. | 한국 근대 미술의 역정 | 홍선표(이화여자대학교) | |
| 36 | 12. 6. | 세계유산의 이해 | 이창환(상지영서대학교) | |

※상기 강의 일정은 강사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